

문학, 그 참을 수 없는 진지함 (수능 언어영역 문학 접근방법)

㉑ -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

written by 『Joshua』

많은 학생들은 최근 매우 난이도가 상승한 언어영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디선가 ‘언어는 문제만 무작정 푼다고 느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른바 ‘양치기’를 하면 안 될 것만 같고, 기출 문제를 풀어 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에 혼자서 나름대로 수능 기출문제집도 사서 풀어보고, 해설도 보고, 인강도 들어 보고 하지만 쉽게 잡히지는 않지요. 사실, 비문학 쪽은 시중에 출제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한 좋은 책들도 있어서 비교적 공부하기가 수월하지만, 문학 관련한 수험서들(종합편이라거나 기본편이라거나 하는)은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문제를 실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나 소설, 수필이나 극문학 자체에 대한 설명은 10페이지 내외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학 쪽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오르비 게시판을 통해 ‘문학, 그 참을 수 없는 진지함’ 시리즈를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제 글을 읽고 질문하는 학생들이나 저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더군요. 이 글은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특히 문학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쓰는 글이고 매우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그래서 번호를 ‘0’번으로 달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으니 가볍게 읽으면 됩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던,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매우 사소하면서도 기본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들은 최근에 매우 콘텐츠가 풍부해진 비문학 영역을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비문학 지문과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문학 문제를 풀 때 적용시켜 버립니다. ‘같은 언어 영역이니깐!’라는 마인드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문학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내용 일치’ 유형과 ‘논지 전개 방식’에 관한 유형입니다. 이 문제를 문학에서 본 적이 있나요? ‘(가)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거나, ‘위 소설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이라는 발문을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도 그 학생에게 저는 ‘지구에 온 목적이 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문학에서는 ‘(나)에 대한 **감상**으로 옳은 것은?’(2005학년도 6월 평가원 42번) 혹은 ‘윗글의 **서사적인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03학년도 수능 53번) 식으로 나오지요. 발문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물어보는 ‘알맹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 일치 = 감상**’, 혹은 ‘**논지 전개 방식 = 서사적인 특성**’이런 구조가 성립할 수 있나요? 비문학에서의 내용 일치와 위 글에서 언급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문학에서의 감상은 작품을 읽은 독자가 느끼는 정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논지 전개 방식은 글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글쓴이가 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문제 및 해결 방안 제시, 개념의 정의 및 적용, 비교·대조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서사적인 특성은 소설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서술자가 어떠한 태도와 문체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를 보면 문학과 비문학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학의 포인트는 작품에 대한 감상이지만, 비문학의 포인트는 지문에 대한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문학에서는 작품의 수용, 작품 속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감상**

이 원칙적으로 출제되지만 비문학에서는 지문에서 설명하거나 주장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것이 문제의 기본형이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비문학과 문학의 출제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면 놓치는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비문학 지문에 밑줄을 쳐 가면서 이해하는 습관 그대로 시와 소설을 풀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나 소설에 비문학 지문만큼 밑줄을 칠 부분이 많은 것도 아니지요.

문학과 비문학이 달라지는 점을 하나만 들어 보자면 문학에서의 작가, 그러니까 ‘시인’이나 ‘소설가’는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는 ‘화자’나 ‘서술자’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인물이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님의 침묵’에서의 화자가 이별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 시를 쓴 한용운 스님이 여자였던 것은 아니고, ‘추천사’를 쓴 서정주 시인이 ‘춘향’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비문학은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작가 ≠ 작품 안의 대리인’이라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문학과 비문학을 비교해 보면 무수히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비교적 최근의 문제를 몇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21~26번 지문 (다)>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駒)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관(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청하 : 푸른 연잎.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의 덩굴.

*일반 청의미 :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제세현(濟世賢)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6. (다)의 ㉠과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잊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그려낸다.
 ④ ㉡은 ‘잊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정답: ⑤

2005학년도 6월 평가원에도 출제되었던 이현보의 ‘어부단가’를 바탕으로 하여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해당 시가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화자’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출제했고(③번의 ‘화자의 내면 세계’, ④번의 ‘화자가 갖고 있는 미련’ 등) ②번 선지를 통해서도 시어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지요. 설마 ‘화자’, ‘시어의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를 비문학에서 찾는 학생은 없겠지요? 답을 고르기는 쉽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북궐’이 상징하고 있는 속세와 자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자연이라는 두 공간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속세를 향해 ‘두어라, 내 시름(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갖고 있던 미련을 포기하고 있지요. 따라서 답은 ⑤번입니다.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48~50번 지문>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계에 엎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흠날리는 초설(初雪)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람*을 걸머지고, 깡매기*를 들고 나온다.

초부: (지계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종 네가 쳤니?

도념: 그러문요. 언젠 내가 안 치구 다른 이가 쳤나요?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고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닳다가* 바람은 왜 걸머지구 나오니?

도념: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아니요. 몰래 나가려구 해요.

초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도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초부: 아예,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념: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구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구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초부: 어머니 아버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도념: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고 하니까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 주며 나를 한참 바

라보구 있드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이, 이게 웬일이냐.’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 내려오든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펍펍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념: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 이 바람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구멍에다 봐 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적.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염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펍펍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 함세덕, 『동승』

*바람: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깡매기: ‘깡과리’의 전라도 방언.

*닷다가: 난데없이.

49. ㉠~㉢의 음향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관객은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다.
- ② ㉡에서 초부는 관객들이 음향 효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기하고 있다.
- ③ ㉢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 ④ ㉡에서는 음향이 생성되면서 도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⑤ ㉢에서는 음향이 도념과 주지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 심리적 여운을 증폭한다.

정답: ⑤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정답률은 49%로 저조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이유는 문학 작품 속 등장 인물의 현재 상황과 극문학 특유의 장치인 ‘음향 효과’를 연관지어 문제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품 마지막에 도념은 어머니를 찾으러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이를 알지 못하고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고 있었지요. 두 인물이 처한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정답은 주지 스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염불을 외는 소리를 가리켜 ‘도념과 주지의 정서적 교감’이라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⑤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 장르 중 하나인 시나리오의 특성, 그리고 작품 속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조금은 헛갈릴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이해라거나 문학 장르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적 독해’가 문제의 주요 포인트가 되는 비문학 지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요. 비문학과 문학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내용적인 차이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발문, 그리고 보기와 선(택)지의 관계 및 분석만을 놓고 생각한다면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쓰기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공통되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분석이나, 발문에 주의하라는 문제 풀

이 방법 등은 그렇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학과 비문학에 공통된 문제 구성 방법, 보기 제시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구성하는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고 문학과 비문학의 출제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작품 및 지문에의 접근 방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간과한다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할계언용우도(割鷄焉用牛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바꾸면 “닭을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뜻이지요. 흔히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힘을 쏟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 쓰이는 관용구입니다¹⁾.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소 잡는 칼로 닭을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소든 닭이든 고기인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든 부위를 다듬을 수만 있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일을 하는 데에 불편하겠지요. 부위를 세밀하게 다듬기는 매우 힘들 것이고, 따라서 닭을 먹기 좋게 제대로 손질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문학과 비문학도 이와 같습니다. ‘소’나 ‘닭’의 관계처럼 대(大)와 소(小)의 관계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소를 잡을 때와 닭을 잡을 때의 요령이나 방법이 다른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 내에서도 문학을 상대할 때와 비문학을 상대할 때의 방법은 달라야 하고, 그래야만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같은 방법론으로 문제에 접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틀린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고난이도 문제에서 함정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소 잡는 칼’로는 소를 잡아야 하고, ‘닭 잡는 칼’로는 닭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고기를 손질할 수가 없습니다.

1)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공자가 제일 처음 한 말인데, 공자가 이 말을 한 진의는 아주 사소한 대상에게도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면상의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논어’의 양화(陽貨)편을 읽어 보세요.